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6.7



성경을 보려고 모여든 파키스탄 여성들

농촌, 부족 마을, 산간 지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성경의 집

핍박을 겪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받은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말씀이 꼭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아말로 성경을 가볍게 여기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핍박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고 꾸준히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실천하는 삶의 가치를 잘 알게 되고, 결국 기꺼이 억압과 공격, 투옥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고난 속에서 힘들게 얻은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한 가지 진리가 아주 강력한 본보기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각한 위험과 막대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일상 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말리와 북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여 그리스도가 신앙 생활의 중심에 서시도록 했는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 말씀에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여겨 기꺼이 순교를 감수했던 두 명의 초기 기독교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서부 말리Mali에서는 많은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올 때면, ‘성경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안내해 준답니다.” 제레미 라사나Geremi Lassana 목사가 말한다.

제레미 목사의 추정에 따르면 말리 기독교인 숫자는 총인구의 3%에 불과하며, 기독교인 중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또한 그는 말리 무슬림 대다수가 성경을 본 적이 없거나, 생명을 주는 이 진리에 대해 알 기회조차 가져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 밖에서는 성경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소수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은 더욱 구하기 힘들다. 제레미 목사는 “말리는 진짜, 아주 광활한 나라입니다. 특히 말리 기독교인을 비롯한 국내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성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 자치국 수립을 목표로 마을과 정부군을 공격하며 말리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2012년 이후 이 무장 세력들은 수많은 말리 주민을 강제로 집에서 쫓아냈고, 일부는 피신하기도 전에 살해했다. “내 형제들이 2022년, 테러리스트에게 살해당했어요. 그 이듬해엔 삼촌과 그의 두 아들 역시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당했구요.” 제레미 목사가 말했다.

말리 당국 추산에 의하면, 이 나라에는 40만 명 이상의 국내실향민DPS이 존재하며, 이들 중 다수는 수도 인근의 난민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곳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정부군 사이의 반복되는 전투 외에도, 말리 사람들의 영혼을 둘러싼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레미 목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무기인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제레미 목사는 대다수가 무슬림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 제레미 목사는 여전히 말리 전역에 성경을 배포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마을들에 제레미 목사는 성경을 배포하고 있다.

인 구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종종 국내실향민 수용소를 방문한다. ‘목회자나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주로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되어 있어요. 박해는 지금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제레미 목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고난을 겪었지만, 영원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그 핏박 속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성경, 특히 아랍어 성경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라고 그가 말했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독교 절기가 되면 제레미 목사는 무슬림 난민들을 행사에 초대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사본도 하나씩 나눠준다. 또 다른 접근 방식도 있는데, 간혹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반유목민 무슬림 부족인 풀라니족 난민들에게 다가가는 특정 전도 방식이다. “그들은 정부가 마련해 준 장소에 소규모 난민수용소를 차려요. 거기에 부족들이 모이면, 나는 성경을 갖고 그들을 찾아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성경 배포를 향한 제레미 목사의 열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져갔다. 그는 오늘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말리 중부 한 마을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제레미 역시 어릴 적부터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소명을 외면했고, 다른 나라로 떠나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면, 그 소명을 따르고 지상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25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제레미는 고향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맡았다. 이후 35년간 그는 그 교회를 섬겼다.

오늘날까지 성경을 배포하는 일은 제레미 목사의 삶의 열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내인 빈투Bintou가 구원받는 데 성경이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무슬림 가정 출신이에요. 부모와 친척들 모두 무슬림이었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사람은 그녀 하나밖에 없었어요”라고 제레미 목사는 말했다.

빈투는 결혼 전, 자신만의 성경이 너무도 갖고 싶은 마음에 한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받기 위해 13km나 되는 길을 걸어갔었다. 빈투는 그날 성경을 받고 기쁨에 가득 차서 다시 13km를 걸어 집에 돌아왔다고 제레미에게 말해주었다.

“성경을 받은 후, 아내는 바로 그 성경으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가족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제레미 목사가 말했다.



성경 단 한 권이 아내의 가족 전부에게 미친 영향을 보게 되자, 제레미 목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레미 목사의 집은 성경 배포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웃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면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제레미 목사는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이 성경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 상관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경을 가져가는 게 기쁨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니까요. 이런 내 정체성을 이곳의 환경에서 받아들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제레미 목사는 말했다. 이제 70세가 넘는 제레미 목사는 말리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전부를 쏟고 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은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배송되어 도착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설레요. 언제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026년 7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라오스 정부 규제에도 모든 성도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서사하라 사하라 서부 지역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찾게 되도록	
5	6	7	8	9	10
 카자흐스탄 이슬람교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의절당한 성도들을 위해	 부룬디 최전방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무슬림에게 사랑으로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스리랑카 아누라, 아에샤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케냐 성경책과 오디오 성경이 케냐 오지에 더 많이 배포되도록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의 압박에도 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12	13	14	15	16	17
 오만 오만 국민들이 온라인과 방송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로코 이슬람교를 저버렸다는 가족들의 분노를 개종자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타지키스탄 비밀 경찰에게 심문과 구타를 당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도록	 부르키나파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큰 위협에 빠진 남부와 북부 성도들을 위해	 나이지리아 보고하람에게 고통받는 성도들의 물질, 정서 및 영적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19	20	21	22	23	24
 아제르바이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현지인들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리비아 리비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증언하도록 (살전 3:12-13)	 예멘 내전에 휘말린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토착 교회가 예수님의 몸 된 전 세계 교회의 사랑과 지원을 경험하도록	 북한 감옥과 수용소에 수감된 성도 3만 명이 주님의 평강과 임재를 알도록	
26	27	28	29	30	31
 부탄 기독교인들이 불교 승려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의 분열 정책 아래서 러시아 성도들이 하나될 수 있도록(요 17:20-24)	 우즈베키스탄 가족에게 배척당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쿠웨이트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기독교인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부룬디 새신자들이 본보기가 되어 핍박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3	4
카메룬 파디마투와 무사처럼 무슬림 가족에게 핍박받는 개종자들을 위해	니카라과 청년 기독교인들이 양육 훈련을 통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10	11
레바논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가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수단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17 제한절	18
모리타니 성경을 밀반입하는 사역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잘 배포할 수 있도록	인도 글을 모르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오디오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24	25
탄자니아 수천 권의 스테디 바이블과 양육 자료를 목회자들에게 배포한 것에 감사	부르키나파소 최근 성도 28명이 살해된 공격에서 다치거나 배우자를 잃은 이들을 위해
31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이 인터넷과 다른 수단을 통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에 감사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성경을 보내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5년, 순교자의 소리 설립 역사상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경을 북한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딤후2:9)** 독자적인 연구 기관들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직접 성경을 눈으로 본 적 있는 북한 주민의 수가 165만 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주민의 90% 이상은 여전히 성경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성경을 배포하는 일이 오늘도 여전히 시급하며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동역 없이는 북한에 성경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는 비용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 북한 주민 1명에게 스테디 성경 1권 배포: 25,000원
- 북한 내부에 디지털 성경 1권 배포: 30,000원
- 존 로스 성경 신판 출간을 돕는 탈북민 학생 1명의 1달 사역비 : 300,000원
- 단파라디오를 통해 북한에 송출되는 성경 방송 1일분 (30분 프로그램 5회차): 1,250,000원

2026년에도 북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일시(1회) 후원을 정기(월간) 북한사역 후원으로 전환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북한'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북한'이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역대 가장 많은 성경, 북한에 들어가다!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한국인들로 구성된 기독교인 네트워크가 이미 한국 땅 전역에 복음을 널리 전파했고 수많은 한국인을 개신교로 인도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이들의 성공적인 전략은, 최초로 번역된 한국어 구어체 성경 초판본 수천 부를 인편 전달을 통해 몰래 배포하는 것이었다. 이 성경 번역본은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인 존 로스 John Ross의 지도 하에 조선 상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로스 본인도 전문적인 성경 번역가로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존 로스 선교 전략의 핵심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현재 순교자의 소리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년 북한 주민들에게 평균 4만에서 5만 부의 조선어성경(북한 방언 성경)을 배포해왔는데, 지난 2025년에는 우리 사역의 역사상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경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매일 북한으로 송출되는 5개의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한 성경 방송 활동과는 별개로 이룬 성과였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배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북한 지하교인들이 우리에게 북한에 성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존 로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요청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매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성경을 전달하고 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우리는 배포한 성경의 정확한 수량이나 배포 방식 및 기술 정보 대부분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령인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역의 열매들을 독자들에게 나눌 기회를 늘 모색 중이다. 이에 다양한 경로로 성경을 전달받은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경 반입을 허용한 북한 국경 경비대원

우리가 그 탈북민 청년을 만난 것은 그가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는 북한에서 10년간 군복무를 마친 직후 탈북하여 한 동안 중국에서 지냈다고 했다.

그가 국경 강변에서 경비대원으로 복무하던 때, 한 중년의 북한 여성이 튜브로 만든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왔다. 그 여성은 'DVD'라고 적힌 상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가 상자를 수색하자 바닥 쪽에 숨겨진 성경 6권이 나왔다. 성경을 보자마자 청년은 죽은 사람처럼 얼어붙었다. 그에 따르면, 북한 국경 경비대원들은 모두 "성경을 보면 죽는다"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총명했고, 그 말이 성경을 목격하여 상부에 보고할 경우 오히려 혹독한 심문이나 감시를 당한다는 뜻을 알고 있었다. 청년은 매우 당황한 채로 그 여성에게 "평생 이 일을 발설하지 마시오. 나도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을테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대로 성경을 들려 여성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화는 하나님께서 그분만의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경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역사하심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인간의 속임수가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내게 총이 있었다면,
내 상사들을 다 쏘 죽이고..."

"내게 총이 있었다면, 내 상사들을 다 쏘 죽이고, 그다음엔 나도 쏘서 죽어버렸을 텐데..." 북한 노동자가 말했다.

이 북한 노동자^{당으로부터 러시아 해외 근무 신청을 승인받은 소수의 '운 좋은' 북한 주민 중 하나는} 상사들의 무례하고도 잔인한 행태를 회상하며 이를 악물었다. 해외 근무를 원하는 북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현재 상사들은 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마치 소모품처럼 여겼다. 상사들은 북한 해외노동자들에게 먹을 것도 아주 조금만 주었고,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조금 주었다.

이 북한 노동자는 해외에서 일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을 이미 목격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는 해외로만 나가면 자신의 두려움과 고난에 대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희망을 빼앗긴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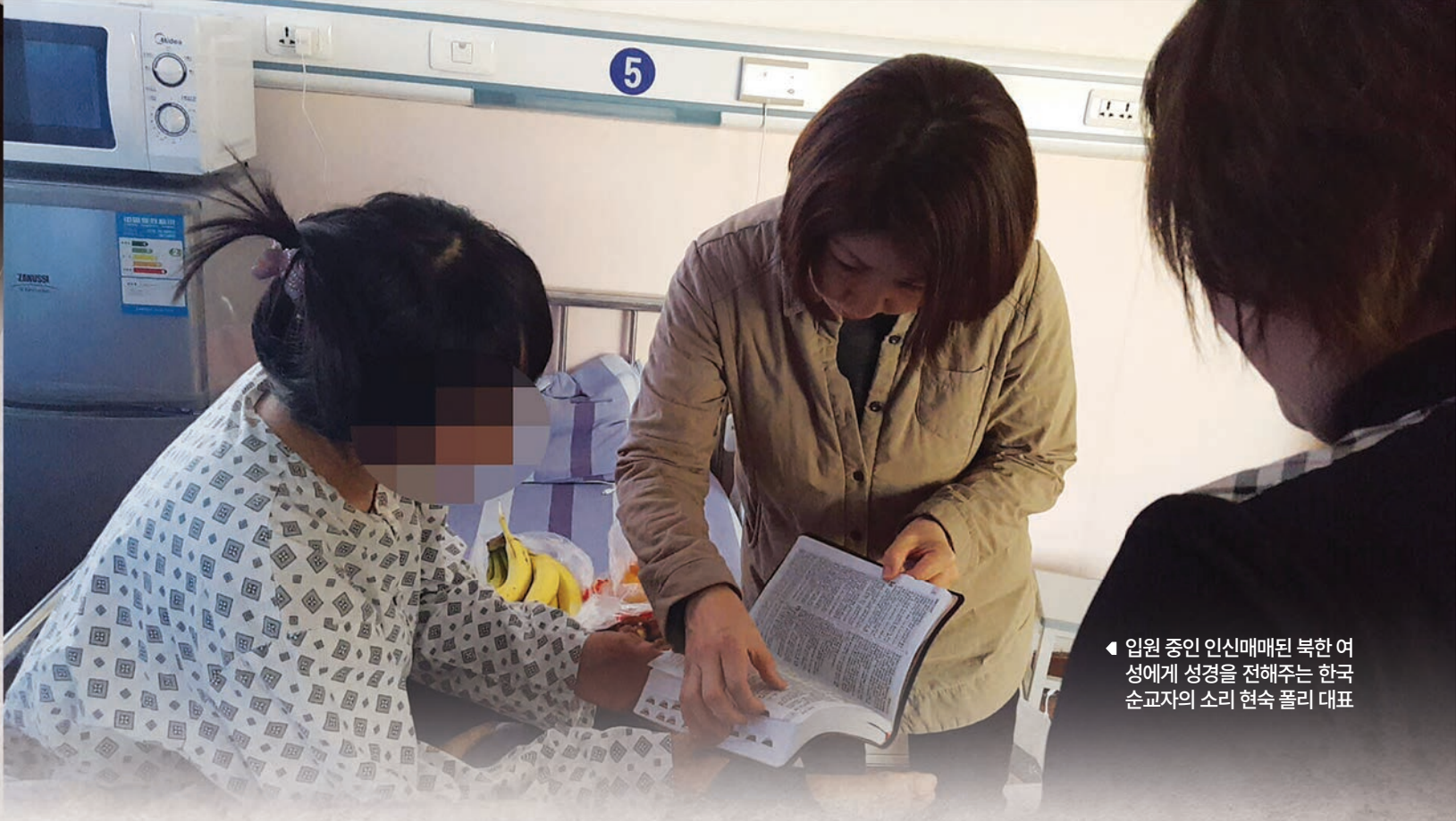
그에게 남은 것은 기대했던 음식이나 돈, 안전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증오와 절망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다시 찾아간 우리 동역자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그 노동자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북한 노동자들처럼, 이 노동자 역시 조선어 성경이 담긴 MP3 플레이어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녹음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했다. 가장 어둡고 위험하며 궁핍한 그 공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내의 마음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펴주신 것이다.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MP3 플레이어를 통해 하나님 말

◀ 오디오 성경이 담긴 MP3 플레이어를 받은 북한 남성



◀ 입원 중인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

섬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말씀으로 기독 찬 머리

최근 우리는 북한 내 또 다른 지하교인 그룹과 연락이 닿게 되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우리에게 성경을 요청했고, 우리도 늘 그러했듯이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했다.

우리는 성경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는다. 성경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투옥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구하기 힘든 물건이 아니라 감히 요청을 하기조차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감동시키는 점은, 우리에게 성경을 요청하기 이전부터 그들이 이미 성경 구절을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암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있는냐고 묻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지하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중 절반은 이 교회에서 산 세월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당연히 머릿속이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어둔 말씀들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썰미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하교인의 말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 이 북한 지하교인은 자기 인생의 절반을 교회에서 보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교회란 건물이 아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성도들의 한 몸, 그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둘째, 북한 지하교인은 또한 “머릿속이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경책이 없으면서 어떻게 머릿속이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일까?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담은 그릇(책이든, MP3 플레이어든, 혹은 설령 그것이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마음이든)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굳이 ‘성경책’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북한 사역을 수년간 해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계속해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다. 이렇듯 사실은 우리에게 그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면, 우리는 겸허해진다.



◀ 순교자의 소리의 유유선교학교(Underground University)에 참여 중인 탈북민들의 손에 들린 조선어 스터디 성경

2026년 하반기, 드디어 제주에서 지하신학교가 열립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단 한 번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하신학교는 개신교 모든 교단이 동의하는 기본적인 '복음'을 신구약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함으로, 성경을 올바로 읽게 도와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작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전체 신구약에 계시된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 2025년 지하신학교 참석자들의 피드백

“교회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이다. 순수한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학교다”-문○목사

“1강만 들어도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 복음에 대해 배우고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김○○집사

“종교의 자유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는 성도라면 꼭 한번 들어보도록 추천한다”-김○○집사

㉡ 신청방법 및 강의내용

■ 6개월 과정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월 1회(8.22/9.19/10.31/11.21/27.1.23/2.20)
※ 날짜 변경시 2달 전에 미리 안내 드립니다.

■ 훈련비 : 400,000원(6개월 과정, 식사 제공)

■ 강 사 :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 / 현숙 폴리 대표

■ 장 소 : 순교자의 소리 제주홀(구체적인 장소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010-3151-2065 / 02-2065-0703 (지하신학교는 별도의 학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신교인이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하신학교의 내용은 '복음' 책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8/22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9/19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10/31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11/21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23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2/20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기독교인이자라면, 꼭!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항상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관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고, 신약의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이기도 하다.

마치 화장품 광고하는 것처럼, '문제(죄)- 해결책(내 죄값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 혜택(천국)'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

에릭 폴리 · 현숙 폴리 지음 | 20,000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담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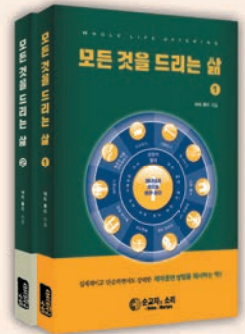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20) 라는 지상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책에서 폴리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설명하며,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도록 돕는다.

모든 것을 드리는 삶 ①②

에릭 폴리 지음 | 세트 30,000원



※ 도서 주문을 원하시면 오른쪽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순교자의 소리 02-2065-0703(화-토/9am-5pm)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 vomkorea.com/store를 방문해주세요.



존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한국 기독교인이자라면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1세기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조선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 누가복음 쪽 복음서를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은 읽어야 한다. 현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띄어쓰기와 문법, 철자를 교정하여 새롭게 태어난 21세기 독자판!



조선어
스테디 성경
30,000원

남한 및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받은 최고의 북한어 성경.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국제적 압력에 대항하여 1980년, 북한 조선기독교도련맹이 남한의 공동번역을 가져다 북한어로만 바꾸어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본문으로 된 성경.



조선어 스테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포켓용 작은 성경으로 창세기와 신약으로 구성. 위클리프 스테디노트를 번역하여 첨부한 스테디 성경.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숭실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